

유튜브[임마누엘교회 울현동], 카카오톡 채널[임마누엘교회]

새가족 환영

God bless you

www.immch.or.kr

SINCE1982.4.11

제24-34
2024.08.25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식사
오늘 공동식은 무더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전교인수련회
8.31(토) - 9.1(주일) YMCA 유스센터(고양시)
9.1(주일) 주일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드립니다.
당일 주일예배만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안내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해 특별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355-0074-8968-63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김바울 수)

4 생명의 삶 9월호
개인 큐티 및 매일아침예배 말씀 묵상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신청새가족[2024-46~47]



이정일 집사



이향신 집사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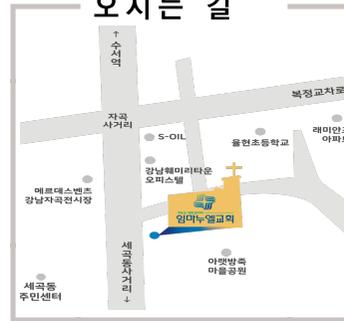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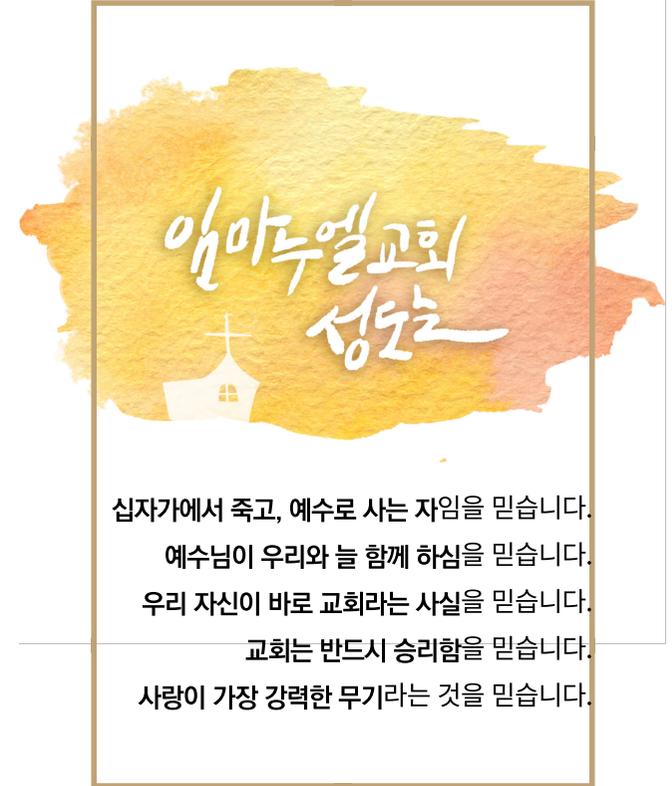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익산벨레교회 마춘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바른 예배!!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잘 나타내 줍니다.

예배 지각은 No!!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꿉니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가 정 예 배

가정예배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정기평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성경	사도행전 16:16-34(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김영광목사
*봉헌과결단	부르신 곳에서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9/1 전교인 수련회

9/8 1부 조명선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데살로니가전서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말씀_사도행전 16:16-34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빌립보로 간 바울은 발레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처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전도계획을 세우며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기도하러 가던 길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들린 여인으로, 기도하러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참다못한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린 여인이 사람들의 점을 봐주며 벌던 돈을 착취했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기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하여 옥에 가두게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해석할수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감옥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는 온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던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차꼬가 풀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감옥을 지키느라 힘들어 잠든 간수는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쳐 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로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하고 물었고,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후 간수는 이 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왔지만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는 때, 이 둘은 그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해되어서, 감당이 되어서,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통,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십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나요?
- 2) 하나님은 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집 / 감사헌금-김바울집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